

민간 건설 발주량 감소, 건설업계 '보릿고개'

강원 주택사업 경기지수 급락
지난달 61.1, 전월비 32.2p 감소
민간 수주액 전년 5.6% 수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에 강원지역 주택사업경기지수가 급락하는 등 민간 건설 발주량 감소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달 강원지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61.1로 전달(93.3) 대비 32.2p 크게 감소했다. 전국평균 실적치(65.1) 보다 4.0p 나뉘었고 지난 7월 전망치(66.6) 보다도 5.5p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달 전망치도 61.1에 머물며 기준점(100)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직후 강원 주택시장에 수도권 수요가 몰려올 것이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로 체감 경기가

높았지만, 지역을 막론하고 다주택 보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7·10대책 발표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지수도 급락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조기발주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들어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향후 도내 주택 건설 수요까지 감소하며 민간 발주가 위축, 강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크다. 지난 6월 강원지역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

은 65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동월(1394억 4400만원) 대비 735억 100만원(52.7%) 감소해 반토막이 났고, 민간 수주액은 같은 기간 2380억 900만원에서 133억 1300만원으로 줄면서 전년동월의 5.6% 수준으로 대폭 위축됐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건설분야 민간 투자가 많지 않아 관급공사의 의존율이 높은 강원지역에서 제한된 물량을 두고 영세한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수주난과 영세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타 시·도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